

한국특허정보원, KIPS 입주식 거행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이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 지식재산센터(KIPS) 입주를 기념하는 입주식을 가졌다.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특허청 정태신 차장, 한국특허정보원 이상복 이사장, 대한변리사회 정태련 회장, 특허청 정보자료국 이은우 국장, 한국특허정보원 이사 경기대학교 산업재산권학과 이원재 교수, 한국특허정보원 민경탁 원장, 한국특허정보원 감사 김흥두 변리사, 홍영표 변리사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테이프 커팅식 및 사무실 순시, 2부 입주 기념식 순으로 거행됐다.



한국지식재산센터 입주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내빈들은 선형기술조사본부, 조사본부 전산실을 둘러본 후, KIPRIS 사업팀 전산실에서 KIPRIS 서비스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어 8층 대회의실에서는 입주 기념식이 열렸다.

개회에 이어 한국특허정보원 민경탁 원장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한국특허정보원 이상복 이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상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특허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범국민적인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과 특허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정보의 원활한 보급에 있었다”며, “발명회관이라는 작은 등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한국지식재산센터라는 전진기지에 안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가는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정보기관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 정태신 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그 동안 국가 연구개발의 중복투자 예방과 민간의 R&D 사업 방향 제시를 위하여 특허기술정보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으며, 선행기술 조사사업을 비롯한, 국제특허분류,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특허고객 콜센터 등 특허청의 주요 사업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며, 특허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허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식재산센터가 개관되어 오늘 한국특허정보원이 입주함으로써,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함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각종 민원사항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해결되는 One-Roof System이 완성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내빈들은 한국특허정보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케익 커팅 순서를 가졌다.

이상복 이사장은 커팅에 앞서, “한국특허정보원의 입주를 축하하는 동시에 무궁한 발전과 선전을 기원한다”고 분위기를 북돋았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원스톱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지향하는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부터 8층까지 총 3개 층, 약 2,400여 평의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공간에서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도모하고 질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첨단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했다. ☑



한국특허정보원 신사옥 안내

-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6~8층
- ▲ 전화 : (02)3452-8144(대) ▲ FAX : (02)3453-5951
-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전방 약 200M

